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7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3호

민선6기 원도정 출범 1년·제10대 도의회 개원 1년 사회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건강한 복지공동체 위한 밑거름 조성

다양한 정책시행으로 내적 외적 성장 이뤄

제주특별자치도 민선6기 원희룡도정(이하 원도정)이 출범한지 어느덧 만 1년이 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원도정은 다양한 정책시행과 굵직한 국가사업 유치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원도정은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위원을 기존보다 확대했고,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현장대응력도 강화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개선했으며, 만5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꾸준한 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분야 비교조사에서 장애인복지분야 1위를 차지하는 쾌거도 이뤘다. 아울러 김만덕 기념관, 광역보조기구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유치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과제로는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수요에 맞는 데이터 구축, 생활 체감형 정책개발 등이 꼽혔다.

☞ 관련기사 7면 계속

현장의견 수렴하며 다각적 활동 전개

현안 대응력 높인 활동들 돋보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이하 복지안전위)는 제10대 도의회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데에 주력했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안전위는 자치입법활동으로 총 9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15곳의 사회복지직능단체와 모두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었고, 의원연구모임 주최로 특별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운영했다.

또한, 복지안전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했고,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성과도 이뤘다.

한편 과제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사안을 알리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7면 계속

지방보조금 지원 까다로워 진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이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법률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거나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예산편성이 불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해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사업은 700여개에 이르며, 관련조례는 29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TF팀을 구성해 지방보조금 예산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보조금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조례상의 규정 내용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6회 김만덕상 후보자를 8월 5일까지 추천받는다.

후보자 추천은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여성으로,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나누어 받는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주도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2837〉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방법
- 상담콜 또는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제시됩니다.
- **상담콜** : TEL. 064)702-3782 (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강병삼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소영(인권전문강사)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5월 28일 제주시 일도2동 천수동로 3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 개소했다.

장애인 인권운동 보금자리 확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실 일도2동으로 이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 정치참여에 앞장서 온 **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이 지난 5월 28일 일도2동 천수동로 3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 개소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고 있는 장애인권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모금운동을 벌여, 행정의 도움 없이 장애인 및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단독건물을 매입하게 됐다.

이 공간에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등 부설기관이 입주했으며, 그 외 부대시설로 다목적 세미나실, 컴퓨터, 교육실 등이 마련됐다.

이번 사무실 개소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한 곳에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을 받는다.

고현수 대표는 "우리(장애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동료로, 협력자로 받아들여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제주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식품기부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대천·중문·예래동)가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철, 화북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비례대표),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강익자, 비례대표)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기부식품 원칙을 비롯해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 식품기부 협조요청,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그 중 약 80%를 차지해 장애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발의됐다.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통합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통합보호시설' 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만18세 미만 이하의 아동을 동반해 시설에 입소할 경우, 아동양육비를 명시하고 가족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 방지 대책 수립 및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의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역자문기관'과 함께하는 실무자 현장간담회	• 사업 및 시스템운영에 관한 의견수렴과 관련정보 공유	3일(금) 10:30~12:00	732-2352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 아카데미 '맛있는 스피치' 대상자 모집	• 명확한 의사전달 및 스피치 향상을 위한 '맛있는 스피치' 특강	6일(월) 14:00~16: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다목적실 모집기간 : 3일(금)까지 대상 : 여성장애인(30명 내외)	710~9866
	"The 큰 세상으로!" 장애학생 계절학교 (여름방학) 참여자 모집	• 전환교육 및 체육활동, 체험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10일(금) 17:00까지(선착순 접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외 대상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자조적 신변처리 가능한 장애 청소년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18회 전도수화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노래(5분이내) • 연설(7분이내) • 연극 · 기타 수화로 표현하는 공연(10분이내)	모집기간 : 10일(금) 까지 접수 : 우편 및 팩스, 방문, E-mail(deafjeju@daum.net)	743-3922
(사)제주장애인연맹	제16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 장애인인권을 주제로한 영화로 5분 이상 분량	10일(금) 18:00까지 접수 : jejudpi@hanmail.net	757-9897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반디여름프로그램 '반디의 책 놀이터 3'	• 놀잇감 놀이, 팀놀이 • 옛 이야기 나누기 • 대상 : 선착순 15명(6~8세)	7월11일(토)~8월 8일(토) 5회기, 10:00~11:30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1577-1406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제주도지부	2015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컴퓨터프로그래밍, 제과제빵, 화훼장식 및 나전칠기	22일(수)~24일(금) 개회식 : 탐라장애인복지관 경기장 : 한국폴리텍 1대학 및 도장애인종합복지관	756-4980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6월 식품기탁자

▲금강수산유통=고등어 40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388kg ▲김치원=김치 50kg ▲꽃비나리는뜨락=떡 567개 ▲동원F&B제주=만두등 5,090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등 1,054개 ▲이든이네=멸치 7.5kg ▲자연드림이도점=빵 122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9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541봉 ▲행복나눔마트=세제 90kg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150,000	0
난치병환아후원	12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1,190,000	1,190,000
복 지 사 업 후 원	1,975,591	568,560
푸 드 마 켓 후 원	5,606,940	842,357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윤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메르스 여파로 사회복지업무 차질 빚어

(중동호흡기증후군)

전국단위 행사 및 교육·봉사도 줄줄이 연기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으로 전국이 불안에 휩싸였던 가운데 도내 사회복지계에도 그 여파로 업무차질이 빚어졌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가 주관한 전국단위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육 및 봉사활동이 연기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나타난 뒤, 국내에는 모두 182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고 의심증세로 인해 격리되었던 사람도 1만 명이 넘었다.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달 5일~8일 동안 141번째 환자가 잠복기에 제주를 방문해, 총 179명이 모니터링 대상자에 올랐고, 81명이 의심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141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비롯해 의심신고 대상자 모두 별 증세가 없거나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메르스의 파장은 제주도를 피해가지 않았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이 크게 줄었으며, 도내 관광업 상공인들의 매출도 대폭 하락했다.

사회복지 영역에도 메르스의 여파가 매섭게 몰아쳤다.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한화리조트에서 열리기로 한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도 메르스의 영향으로 잠정연기 됐다.

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이 계획한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달 12일과 16일 예정된 자활경연대회와 농아인문화페스티벌이 잠정 연기됐으며, 제주장애인기능경기대회도 한달 뒤로 개최일정을 미뤘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관 및 요양시설, 경로당에서도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봉사활동, 외부인의 면접요청 및 다수가 모이는 행사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각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수칙을 전달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공급용 손소독제를 구매해 배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단 0.1%의 메르스 원인도 차단하기 위해 비상체제 운영 등 총력 방역체계를 가동해 메르스 청정지역 타이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청소년체육대회 숨은공로자 '화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고관용) 회원들이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성공개최의 숨은 공로자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 150여명은 전국장학생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지역주민과 선수, 대회 관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문턱을 없애자' 라는 문구를 담긴 물티슈를 배포하는 등의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 장애인지원협의회와 지역장애인지원협의회는 대회기간 중 제주도내 15곳의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선수단 1500여명에게 감귤비타민을 전달하는 등의 격려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제주, 전국휠체어농구대회 2연패 쾌거

서귀포썬더홀스농구단 2부리그서 2위 차지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단장 부형종)이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의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1부 리그 5개, 2부 리그 4개 팀 등 모두 9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제주도휠체어농구단은 결승전에서 국내유일의 실업팀인 서울시청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앞서 열린 2부 리그 결승전에서는 서귀포썬더홀스휠체어농구단이 울산광역시휠체어농구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 센터 김동현과 가드 황우성은 대회 MVP에도 선정됐다.

부형종 단장은 "선수들의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대구컵 및 SK텔레콤배 전국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복지」 이야기 ③

아이 보호·지원 테마인 '타이거 라디오' 인기

'사회적양호' 를 테마로 한 일본 최초의 라디오방송 '타이거 라디오' 가 일본 열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양호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양육이 적당하지 않은 아동,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가정 등에 사회전체가 공적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타이거 라디오」방송의 사회자는 시설퇴소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타이거 마스크 기금' 대표이사 안도 테츠야씨와 아동시설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3keys' 대표이사 모리야마 타카에씨이다. 지난 28일 방송된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장인 하야카와사토시씨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자유기고가 쓰기야마 하루씨가 초대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연을 보내온 독자가 자신이 아이를 키우며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사회자 안도씨가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자, 스기야마씨는 '무조건 비난하기 이전에 열심히 노력했었군요' 라고 위로의 말부터 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방송에는 주거지불명 아동 문제도 거론됐다. 또한 청취자의 목소리 코너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출신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충실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편지가 낭독됐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사회적양호의 개념을 사회에 알리고자 편성됐다.

출처 = 복지신문 (2015. 6. 23)
〈번역 = 전학봉 사원〉

▲ '사회적양호' 를 주제로 매월 진행되는 '타이거 라디오' 방송 모습.

◆ 복지신문이란?

일본의 복지신문은 1955년부터 사회복지발전이란 사명으로 당시의 복지 관련 전문가에 의해 발행됐다. 이후 사회복지 유일의 전문지로서 대상자 및 지원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움직임을 전해 왔다. 근래에는 사회복지 동향을 보도하고 폭넓은 과제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복지 이야기③의 주제인 '타이거라디오' 다시듣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복지현장 인권교육·법률지원 나선다

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권사랑방 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사회복지현장 내 인권문제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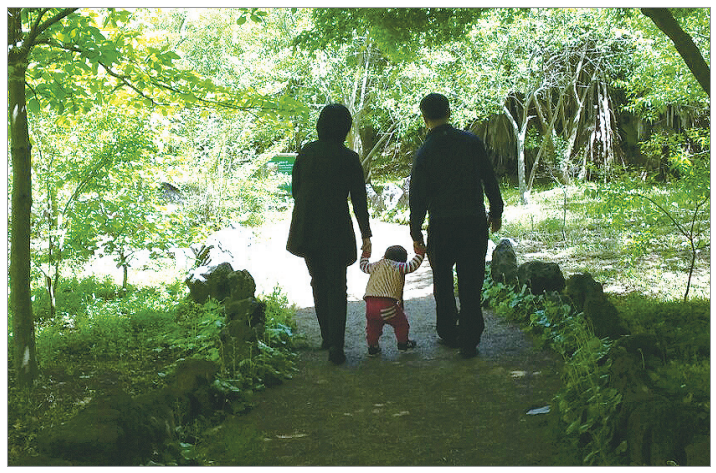
도 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권옹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1일'사회복지인권사랑방(운영위원장 고관용)' 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사회복지인권 사랑방은 사회복지현장 내 인권침해 사례 등을 발굴하고, 변호사 직통전화(702-3782)와 전용우편(tohic@naver.com)을 통해 법률지원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사업으로 도내 인권강사와 연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인권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추천, 인권침해 대응교육 및 현장 매뉴얼 개발 등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인권사랑방(위원장 고관용) 현판식 및 운영위원 위촉식' 이 열렸다.

운영위원에는 고관용(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병삼 변호사, 고현수(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장소영 인권전문강사, 황인철(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위촉됐다.



새로운 가족, 첫 발을 내딛다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강철남)가 주최한 '2015 사랑의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지난달 5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제주시 외도1동에 거주하고 있는 손현완 씨의 작품 '새로운 가족, 세상에 첫 발을 내딛다' 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제주시지회(회장 성진숙)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성호)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지난달 4일 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 및 산하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연합회장 원석철), 안덕면 장애인지원협의회가 2015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실시했다.

지난 5월 23일 공헌활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덕면 사계리와 남원읍 의귀리의 가정을 찾아 부엌, 천장 수리 및 싱크대 교체, 보일러 설치 및 난방시설 공사를 했다.

그 외 활동으로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춘강의원에서 진료 및 물리치료 받도록 안내했으며, 저소득 농가 5곳을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저소득 100가정에 김치 200포기를 전달했고, 저소득 가정 20곳에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제작한 침구류 세트를, 10가정에는 어울림터에서 생산한 된장·간장 세트를 전달했다.

제주동초등학교 책읽어주기 봉사단 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12일 제주동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제주동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어머니회(회장 최미세) 지역사회봉사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학부모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책읽기 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날리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공동 주관한 '제26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식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 수상작이 지난 5월 29일 발표됐다.

이번 대회는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작품 공모결과 도내 56개 학교의 총970명(글짓기 313점, 그리기 657점)이 참가했다.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은 김재현(동화초 5), 진대원(동광초 4), 강상필(서귀포온성 중등 3), 강예림(서귀중앙여중 1) 학생, 글짓기 최우수상에는 송지민(광양초 4), 오채은(서귀중앙여중 2) 학생이 수상했다.

|그리기부문 최우수상| 우리 모두 신나게, 얼쑤 / 김재현 (동화초등학교 5학년)

손

|글짓기부문 최우수상|
송지민 (광양초등학교 4학년)

손에 눈이 있어요.
점자를 읽는 손

손에 입이 있어요.
수화를 하는 손

손에 악보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손

문득
장애우의
손이 되고 싶었어요.

소/식/마/당

도교육청서 차곡자활사업단 운영

제주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하에 '차(茶)곡(穀)' 자활근로사업단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밥 먹고 차 한 잔 하는 곳', '자활 꿈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곳' 등을 뜻하는 차곡사업단은 자활사업참여자 4명이 참여하며, 정식·라면·토스트·커피·차 등의 메뉴로 교육청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교사 대상 복지요결강좌

제주시거점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65일 꿈꾸는 우리 아이들과 꿈나누기' 복지요결강좌를 지난 22일부터 5일간 열었다.

이번 강좌는 한덕연 사회복지정보원장을 초청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사회사업 이상과 철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수사회적경제 기업에 선정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가 제주시가 선정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2015 우수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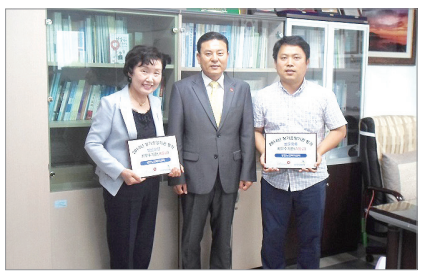
일배움터는 안정적인 고용 및 착실한 사업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및 사회적 · 공익적 목적의 착한 사회적기업 운영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해피 바이러스 UP' 프로그램 실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사례관리대상 가족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체험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체험 프로젝트 '해피 바이러스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인 제주물마루된장학교를 견학하고 제주전통 된장만들기와 고추장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최우수기관 선정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성안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옥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성안노인복지센터는 이번 선정으로 방문요양 3회 연속, 방문목욕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뇌병변 장애인 위한 '워거즐튼무아'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다음카카오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성인중증뇌병변장애인의 즐거운 생활을 위한 취미·여가프로그램인 '워거즐튼무아'를 진행하고 있다.

'워거즐튼무아' (아무튼즐거워)는 성인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감각자극(청각, 촉각, 시각)을 통해 표현능력을 강화하여 긍정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늘푸른자원봉사회 발대식 열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 늘푸른자원봉사회(회장 김동선)가 지난 5월 30일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늘푸른봉사회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총 62명으로 구성된 봉사회는 10대부터 60대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제주농협애덕봉사회 성금기탁

제주농협애덕봉사회(회장 현창일)는 지난 5월 30일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신부)에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대회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제주애덕의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홈 마련을 위한 모금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노인당 봉사활동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2일 이용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노인당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송죽원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이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송죽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꽃향기 가득 품은 허브동산 방문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과 함께 지난달 12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제주허브동산를 다녀왔다.

센터 종사자와 이용인들은 약 150여종의 허브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채워진 각양각색의 정원을 구경했고, 로즈마리 이야기관에서 레몬그라스차를 마시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힐링과 화합의 산행 개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지난 5월 29일 자활근로 참여주민과 부설기관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노인돌보미들이 함께 하는 '한라산 윗세오름 등반'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서귀포일터나눔자활근로참여 주민과 노인돌보미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행사로, 일터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산행을 통해 재충전하고자 계획됐다.

전래놀이 봉사단 '지꺼지게 놀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아라마을 전래놀이 봉사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라동 지역 내 55세 이상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해 운영되는 봉사단은 어르신 봉사단원이 전래놀이 및 아동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은 뒤, 직접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전래놀이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론

가정마다 안고 있는 노부모 돌봄 고민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연로하신 노부모를 돌보는 일로 고민하지 않은 가정은 별로 없다. 때로는 가족들이 직접 돌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맡기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노부모 돌봄은 가정마다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대가족시대에는 부모 돌봄은 당연한 일로 여겼다. 한 식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은 가족의 틀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경제구조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가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 효도라는 따뜻한 마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넉넉한 경제적 뒷받침과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 경우 더욱 힘들다. 생활전선에 내몰린 가족들은 부모 돌봄은 고사하고 얼굴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부모부양 책임여부를 놓고 가족끼리 갈등이 빈발하기도 한다.

이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그 책임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패턴 변해

이처럼 국가의 부양서비스 확대로 가족들은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건강한 노부모까지 맡기는 것은 아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찾는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들 상당수는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나약한 상태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칫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사고가 제주시 소재 모 시설에서 최근 발생하기도 했다.

갈등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시설 측은 충분한 소임을 다해 돌봤다고 한다. 반면 가족 측은 믿고 맡겼던 돌봄 결과가 골절이라는 사고로 이어지자 믿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비율은 사고기여율 사정에 따라 시설 측의 책임을 20~30%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비율을 사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사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다.

배상책임 못지않게 도덕적인 이해가 병행돼야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 유사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

사회복지사에 관한 소고

이정필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장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 무례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지만 종종 거론되는 의문이다. 이 질문은 외부보다 사회복지계 내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스스로는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승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직업을 소개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은 유사하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보람있으시겠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희생'과 '봉사'를 하는 일로 본다. 전문직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저 '착한 천사표' 직업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법이 정의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여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였다면 전문직이지 않은가.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군들이 '사회적 승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하고 싶지만, 현실이다.

사회복지학 사전에 실린 사회복지 전문직의 성립조건을 요약하면, 고도의 이론적 체계와 전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공 이익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의 조직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그것을 지시하는 윤리강령, 문화, 능력, 자격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 직업군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일까. 사회복지계의 리더그룹은 물론 개별 사회복지사 각각이 심도 있게 돌아봐야 할 과제이다.

칼럼

징집(徵集)과 분단조국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2004년 부터 병무청에서 펼치고 있는 병역명문가선양사업에 2015년까지 총 2871가문이 선정되었다. 금년 새로 선정된 466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열렸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가족 모두가 명예롭게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들에겐 표창과 병역명문가패가 수여되고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내력이 소개된다.

병역은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의무지만, 3대가족 모두 명예롭게 제대(除隊)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가족 중 현역부적합자나 병역면제, 입영기피, 의병제대,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명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문은 3대가족 남자 8명 모두 225개월의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쳐 2011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금년 개최된 시상식을 보며, 느끼는 동질감에 감회가 새롭다. 병역명문가로서 작은 자존감과 뿌듯한 보람마저 느낀다. 적대적 이념(理念)이 대치(對峙)하는 분단국가에서 징집은 필연적이다.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지금까지 권력과 금권, 브로커를 동원, 병역을 기피하려던 병무비리가 종종 있었다.

병역기피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자해, 허위진단, 외국국적취득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들이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게 하며, 지탄받을 공공의 적들이다. 요즘은 병무행정이 쇄신되어서 그런지, 탈법, 불법을 동원한 병역기피자들 소식이 뜸하기는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병력자원감소, 전시작전통제권, 전력의 비대칭, 북한의 핵문제 같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전력증강과 강군육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군(軍)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기문란사고와 군대부적응 관심사병, 계속 들춰지는 방산비리(防産非理). 과연 이 엄청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비리관련자들도 장성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뭐가 다르겠는가. 관련 된 범법자들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斷罪)해야만 한다.

세계유일의 분단의 땅에 지속되는 평화는 휴전(休戰) 중 미완의 평화이다. 항시 긴장과 도발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기피 없는 징집과 전력 증강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여 도발에 강력히 응전해야만 한다. 투철한 국가관과 튼튼한 안보, 자주국방만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민선 6기 원도정 출범 1년 사회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세심한 복지정책 눈길… 복지체감도는 과제

주요성과

◆ **현장중심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

원도정은 현장에서의 복지전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했다. 복지위원 확대를 통해 읍면동의 인적안전망을 강화를 모색했다. 지역실정에 능통한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존 399명이었던 복지위원을 522명으로 확대했다. 또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대상자 결정권을 읍면동장이 확보하게 됐다.

◆ **전국최초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임금 현실화**

원도정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앞장섰다. 전국최초로 분권과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불균형 보수체계를 개선해 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244명 종사자에 대한 보수 현실화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인권사랑방'을 개설해 복지현장에 대한 인권교육 및 상담지원체계를 시범운영 하고있다. 아울러 만5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병의원 무료 독감 접종을 전국최초로 실시해 25,512명이 혜택을 받았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원도정은 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유치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지난 2월 광역보조기구센터를 유치해 앞으로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4월 유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통해서는 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과응급 체계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유치한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관계자 관리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눔과 봉사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제주여성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김만덕기념관을 개관했다.

◆ **장애인 복지분야 전국최고 인정 받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분야 비교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조사에서 전체평균 67.23점을 받아 전국평균 46.0점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향후과제

◆ **낮은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과제**

복지예산 증가에도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원도정은 부정수급,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낭비요인 개선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 수요 맞춘 데이터 구축 필요**

이와 함께, 지역별·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미래 수요 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기준 마련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16년부터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복지자원의 집중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적절한 설치기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위한 정책 미흡 네트워크 확대 등 계획**

또 원도정은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맞벌이 가정의 일반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성계 전문가, 정착인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생활체감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여성의 리더역량 개발 및 사회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위기가정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상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위기 대응 시스템을 추구할 예정이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 사회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현장중심 의정활동 주목… 현안대응 지속 예정

주요성과

◆ **현장에서 답을 찾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이하 복지안전위)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주력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직능단체 15곳과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토론회를 3회, 정책별 간담회를 5회를 열고 사회복지현장을 포함한 지역사회 각 분야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임위 차원의 현장방문 4회, 의원 개별현장방문 164회를 통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제·개정**

사회복지현장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 못지않게 실효성 확보 및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도 활동도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안전위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손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을 발의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안전위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됐고,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 **활발한 의원연구모임**

복지안전위는 제2기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을 지난해 8월 창립했으며, 특별강연회 및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제주여성정치포럼을 지난해 9월 창립해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해 긍정적 호응을 이끌었다.

향후과제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대응**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문화 되어오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안전위에서는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침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 복지안전위는 타시도 의회와 연대하여 상임위 차원의 대정부 결의문 채택 등의 방안을 낼 예정이다.

◆ **감염병 예방·대응과 안전체계 구축 촉구**

복지안전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방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는 이번 메르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병원체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취약한 환경이다. 이에 따라, 여러상황에 맞춰 빠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및 도차원의 조직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취약시설 및 주요관광지의 정밀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도민참여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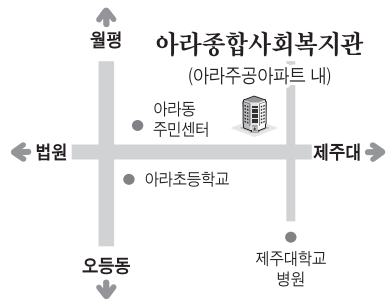
시설탐방 (68)아라종합사회복지관

주민 곁에서 더불어 사는 삶 돕는 복지관

유관기관 협력으로 네트워크 강화… 교류와 이해중심 프로그램 활발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복지관 별빛꿈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복지관 덕분에 형이랑 나만 있는 시간이 많이 줄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많이 늘었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어린이의 편지글이다. 글씨가 참 삐뚤삐뚤 하다. 그렇지만 글 모양이 그렇다고 아이의 마음까지 곱지 못한 것은 아닐 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에 담긴 의미보다 모양에 더 집중하곤 한다.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라복지관은 이런 편견들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 이하 아라복지관)의 첫 걸음은 1992년 아라동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500호 이상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은 제주시의 위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수탁 운영 중이다.

현재 복지관에는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에 따른 10개 분야 42개 사업에 21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자는 월평균 11,000여명에 이른다. 아라복지관은 아라LH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그 덕분인지 복지관 주변은 항상 주민들로 북적인다. 아라복지관은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운영목표로 잡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복지공동체'가 아라복지관의 미션인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아라복지관의 운영은 설립초기 경로식당과 이·미용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설 등과 같은 직접서비스와 역량강화에 중심을 뒀다. 그 후 2002년부터는 이동사회복지관 운영과 경로대학, 자활근로사업 등 외부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내실 강화를 꾀했다.

현재 아라복지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동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일부 노약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신변안전확인 및 주거생활지원과 같은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례관리,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통합을 위한 '아라주는 아라만들기 사업'으로 생태체험, 아라신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을 나누는 아라음악회, 가족한마당 등과 같은 지역행사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조성태 관장은 "다른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류와 이해 중심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4)

아름다운 나눔 실천하는 삼다유통

지난 21일 제주중학교 몽생이 기자단은 4년째 매월 삼다수 기부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삼다유통**(공동대표 김두하·김성훈)을 찾았다.

▲ 삼다유통은 지역사회에 이윤을 환원하고자 매월 삼다수를 기부하고 있다.

삼다유통은 삼다수가 출시된 지난 1998년부터 제주시 지역 삼다수 유통을 맡아오며, 삼다수 판매 활성화에 16년간 일조 해온 곳이다.

삼다유통의 나눔활동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다. 김성훈 대표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할지 알아보던 중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물품전달이 가능한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알게 된다. 이후 현재까지 삼다유통은 매월 제주특별차지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삼다수를 기부하고 있다. 삼다유통이 현재까지 기부한 삼다수눈 2L들이 8만 2천여병에 달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육원 등 도내 8개 기관에 정기적으로 삼다수를 기부하고 있다.

김성훈 대표는 "푸드마켓에서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 주실 때마다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며 "나눔은 많이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진 것부터 조금씩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22

아동학대 신고의무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2014년 초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 친모가 아이를 맡긴 채 보육료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5개월간 그의 아이를 보육해 오면서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이 때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고등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뿐 만 아니라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적정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의 사례처럼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담당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아동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기존 1577-1391에서 112로 통합되었으며, 기존 번호는 2015. 6. 30.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